

세계문학전집의 반성과 南美文學

유네스코 대표작선집을 중심으로

李重漢

서울신문 논설위원 · 출판평론가

최근 중앙일보 출판부는 「소련·동구 현대 문학전집」(전30권)을 간행했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나 밀란 쿤데라와 같이 익히 알려지고 번역된 작품들도 들어 있으나 표제항 55편의 작품을 대부분이 처음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들이어서 상당히 신선한 느낌을 준다. 아마도 이 전집은 시의에 적절하고 또 이렇게나마 좀 알아볼 수 있는 윤곽으로 동구의 문학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 의의를 평가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보면 아직도 우리가 세계의 문학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빈터가 많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다. 동구는 이렇게나마 첫걸음이 이루어졌지만 아프리카·아랍·남미에 이르면 여전히 이역만리에 다름이 없다. 그저 노벨상수작이나 다름이 없다. 그저 노벨상수상작이나 나타나야 그 수상작가의 작품을 느닷없이 줄여들려 한두편 보게 된다.

우리가 물론 세계의 문학을 전부 섭렵해야 한다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꼭 부지런해야 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또한편 그러면 왜 그동안 불문율처럼 읽은 세계문학은 그렇게 영·미·불 중심으로 열심히 읽어야 하는가라는 반문도 동시에 해야 한다. 근자에 와서 우리는 사실 선진국대열에의 진입을 조금은 재보려고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진국들과 동열에 나란히 설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고, 오히려 저개발국들의 선두에서 중진국으로서의 살아나가는 방법을 모범으로 보여 주었으면 하는 것이 내세우는 캐치 프레이즈적 입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가 더 접근하고 이해해야 할 것은 굳이 논증할 것도 없이 제3세계의 읽기이다. 이것들을 더 읽고 더 음미해야 우리의 입지가 논리화된다. 그렇지 않고 선진국의 고전들에만, 또는 선진국의 오늘의 변화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문화종속국으로서의 뒤쫓아가기를 자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나는 지난번에 유네스코 대표작선집 목록을 통해서 동구·아프리카 문학의 몇개 목록을 예시한 바 있는데 이제 이에 이어 같은 자료 속에서의 南美의 목록을 한덩어리 더 옮겨 둘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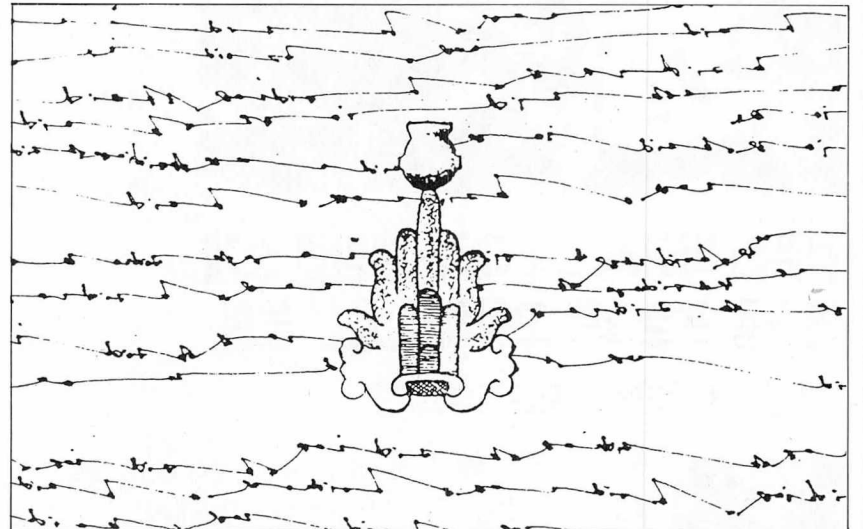
그러면서 내가 이번호에 강조하려는 것은 우리의 '세계문학전집'목록이 이제는 대개혁을 해야만 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로

젊은 시기에 읽게 되는 세계문학이야말로 마음속 깊이 아로새겨지는 세계관의 틀이며 그 세계의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세계문학을 나이가 든 뒤에도 지속적으로 읽으며 세계 여러 곳의 감성을 심정적으로 기억하고 수정해 간다는 일은 전문 문학자 이외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때문에 오늘과 같이 세계의 중심부에 직접 나서야 하게 된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는 사실 서구선진국의 고전이나 여전히 읽고 있을 겨를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나의 일상적 생각이다. 그러나 우리의 세계문학전집은 여전히 그 선진국고전에 묶여 있다.

나의 기록으로는 우리의 세계문학전집은 그 판본이 1백여개를 헤아릴 수 있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20여개의 전집목록이 기반을 이루고 그 외의 것들은 전부 이들을 재탕·삼탕해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 20여개의 목록이 주로 수록하고 있는 반복적 목록이 우리의 주된 서구문학의 감수성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그 목록을 나열해 봄으로써 우리의 이유없는 편식적 문학의 분위기를 재점검해 두는 것은 중요한 일일 수 있다.

우리의 세계문학전집의 주된 목록

- 1) 「세계문학전집」(100권 / 1957) 正音社
- 2) 「세계문학전집」(100권 / 1959) 乙酉文化社
- 3) 「20세기 세계문학전집」(18권 / 1961) 東亞出版社
- 4) 「세계전후문학전집」(12권 / 1962) 新丘文化社
- 5) 「노벨賞文學全集」(13권 / 1965) 新丘文化社
- 6) 「현대세계 문학전집」(18권 / 1968) 新丘文化社
- 7) 「同和 세계의문학 대전집」(34권 / 1972) 同和出版社
- 8) 「세계문학전집」(50권 / 1975) 三省出版社
- 9) 「오늘의 세계문학」(30권 / 1982) 中央日報社
- 10) 「主友세계문학」(110권 / 1982) 學園社
- 11) 「한길세계문학」(14권 / 1982) 한길사
- 12) 「세계문학대전집」(36권 / 1983) 太極出版社
- 13) 「에장관 세계문학대전집」(100권 / 1983) 金星出版社



잉카족에게는 매듭끈이 의사소통의 도구였다. 매듭의 색깔, 배합, 그 모양이 곧 문자를 의미했다. 이것이 남미대륙 문학의 원조일 것이다.

- 14) 「파라다이스 세계문학대전집」(36권 / 1983) 삼성당
- 15) 「에버그린 세계문학대전집」(36권 / 1983) 東西文化社
- 16) 「신편 세계문학대전집」(36권 / 1983) 신영출판사
- 17) 「세계명작전집」(35권 / 1984) 교학사

이들 이외에 「셰익스피어전집」「도스토예프스키전집」(정음사) 「니체전집」「헤세전집」「앙드레 지드전집」(회문출판사) 「썩뜨레즈페리전집」(동서문화사) 등의 개별작가 전집이 10여종 있고, 역시 세계문학전집시리즈 형식으로 대양서적, 한영출판사, 범한출판사, 청구출판사들의 것이 있으나 특별한 기억으로 남길 만한 목록들은 아닐 것이다. 이 뒤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계속 기억될 것으로

- 18) 「오늘의 세계문학」(24권 / 1986) 志學社

등이 있다. 이들중 3개판본이상으로 계속 고정돼 있는 목록을 5개 판본이상·3개 판본이상으로 크게 나누어 보면 우리의 세계문학 이해 성향이 무엇인지를 쉽게 감별할 수 있어진다.

- ▲ 5개판본이상 공동수록 목록
- 셰익스피어 - 험릿 · 로미오와 줄리엣
- 괴테 - 파우스트
- 톨스토이 - 부활
- 도스토예프스키 - 죄와 벌

- 샤르트르 브론테 - 제인 에어
- 레마르크 - 개선문
- 스탕달 - 적과 흑
- 앙드레 지드 - 좁은 문
- 모파상 - 여자의 일생
- 릴케 - 말테의 수기
- 펄 벅 - 대지
- 미첼 -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 셰르반테스 - 돈키호테
- 에밀리 브론테 - 폭풍의 언덕

▲ 3개판본이상 공동수록 목록

- 플로베르 - 보바리부인
- 서머셀 모음 - 인간의 굴레
- 푸시킨 - 대위의 딸
- 투르게네프 -父子
- 도스토예프스키 - 카라마조프家の 형제들
- 에드가 앨런 포 - 검은 고양이
- 토머스 하디 - 테스
- 에밀 졸라 - 나나
- 존 스타인벡 - 분노의 포도, 에덴의 동쪽
- 발자크 - 從妹베트
- A. 솔제니친 - 암병동
- 허먼 멜빌 - 모비딕
- 알베르 까뮈 - 페스트, 이방인
- 川端康成 - 雪國
- 제임스 조이스 - 젊은 예술가의 초상
- 나타니엘 호돈 - 주홍글씨
- 오스카 와일드 -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 호머 - 일리아드
- 밀턴 - 실락원 · 복락원

- 프루스트-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 헤밍웨이-무기여 잘있거라
- 디킨스-데이비드 코퍼필드
- 헤세-향수
- 魯迅-阿Q正傳
- 토마스 만-선택된 인간
- 카프카-심판
- 포크너-음향과 분노
- 고폴리-죽은 魂
- 헉슬리-연애대위법
- 앙드레 말로-인간의 조건
- 빅톨 위고-레 미제라블
- 마크 트웨인-툼소여의 모험
- 셴키에비치-쿠오 바디스
- 뒤마-몽테 크리스트 백작
- 콘라드-로드 짐

이들 속에 물론 남미문학은 흔적조차 찾아 보기가 어렵다.

이 목록들은 또 우리의 아동세계명작전집의 천편일률적 목록이라는 점도 동시에 깨닫을 수 있게 한다. 결국 중앙일보·한길·지학사 판본 이외에는 19세기 말부터 21세기 전반의 문학목록에 우리는 1990년대 오늘에도 머물러 있음을 너무나 분명히 알 수가 있다.

따라서 다음에 옮겨 둘 南美文學 목록은

어쩌면 해설소설에 자주 나오는 라틴어 교실처럼 보일런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시리즈의 빈칸을 위해서만이라도 몇개의 작품을 지적해 두지 않을 수는 없다.

▲ 잉카 가르실라소 라 베카(페루) 「잉카시대 페루에 대한 기록」; 남미 혼혈인에 의해 씌어진 스페인어 최대의 대작중 하나. 이 책에는 잉카시대의 모든 양상-법·문화·제사의식·토목공사·건축기술·동식물·의복·음식 등의 주민역사가 기록돼 있다. (파리판 1982)

▲ 콘콜로르코르보(페루) 「엘 라자 리오:부에노스 아이레스와 라마 사이를 여행하는 초보자를 위한 안내 1773」(인디아나大版 1965)

▲ 시몬 볼리바르(베네주엘라) 「프랑스어판選集」; 그의 글 중에 이런 구절이 있다. “우리는 스페인사람도 인디언도 흑인도 아닌 ‘또 하나의 세계’ ‘하나의 작은 인간장르’이다”(선집글 「자메이카에서 온 편지 1815」)

▲ 호르헤 이삭스(콜롬비아) 소설 「마리아」 (파리판1959)

▲ 마카도 데 아시스(브리질) 소설 「야야가 르시아」(런던판1976)

▲ 호라시오 키로카(우루과이) 「사랑과

광기와 죽음의 이야기」(파리판 1984)

▲ 호세 마르티(쿠바) 「마르티選集」(파리판 1953); 그는 정치평론·문학평론·詩·산문에 이르는 막대한 량의 집필가이다. 혼자서 만들어내는 어린이 잡지 「라 에다 테 오로」도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지금 미대륙과 세계 다른 곳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어린이에게 알리기 위해” 이를 편집한다고 밝히고 있다.

▲ 호세 엔리크 로도(우루과이) 「프로테우스의 동기」(파리판 1966)

▲ 도밍고 F. 사르미엔토(아르헨티나) 「파콘도」 「여행, 하나의 선택」(유로파·아메리카·아프리카) (파리판 1963)

▲ 그라실리아노 라모스(브라질) 소설 「유년시절」(런던판 1979)

▲ 마리오 데 안드라데 「마쿠나리아, 혹은 특징없는 영웅」(파리판 1979)

▲ 호아오 기마라스 로자(브라질) 「첫번째 이야기」(파리판 1979)
(런던·파리판 구분 및 간행년도는 유네스코 번역판 간행기록이다. 전호 참조)

미국대륙은 아메리카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남미의 여러나라들을 뜻하는 것이고 또 이 나라들에는 아직도 읽기를 배운

사람들·생각할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적은 사회의 나라들이다. 따라서 산다는 것의 현실적 제약과 그 어려움과 또 이에 따른 어두움이 더 많이 넘쳐 흐르는 문학세계일 수 있다. 하지만 또한편 그것이 곧 인간의 과장없는 모습일 수 있다. 토속적이며 처녀립적인 문명과 문화의 자취도 더 짙게 생존하고 있다. 이때문에 또 오늘날 남미의 문학성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탐험가적 영감을 불러내고 ‘마술적인 리얼리즘’의 대명사로도 불린다. 우리에게도 알려진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표현대로 ‘언어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으로써 남미문학은 사용될 수도 있다.

헤겔이 말한 적이 있다. “미래에 이 대륙의 역사적 중요성은 아마도 남미와 북미와 벌일 대결 속에서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나같은 철학자가 예언자인진 않다. 그러므로 말할수 있는 것은 남미의 문화속에서 문학이 우선 경험의 문학으로부터 사고의 문학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자기자신이 성숙하는 것을 이제 곧 보게 될 것이다. 남미의 문화가 대륙적 성격을 띄게 될 것임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가 ‘사고의 문학’과 보다 ‘대륙적인 문화’로의 진척을 우리자신의 거울로서 보다 잘 드러다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79-5 135-100 전화 514-5544-8 팩시밀리 514-5549

청·하

高銀全集 ▶ 고은 에세이

세노야 세노야

「세노야 세노야」는, 한려수도 일대에서 들리는 떨치잡이 어부가의 앞소리를 딴 이름으로 낸 책이다. 만일 내가 지금 죽는다면 이런 글 따위는 쓸 수 없으리라. 그리고 이런 일이 나한테는 꼭 뜻 깊은 가정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나 없이도 얼마든지 이 세상이 회노애락과 함께 살아갈 터이기 때문이다……. □ 446면 / 6,000원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모든 것은 덧없다. 태어나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덧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한 페이지의 슬픈 소설을 읽는 것이다. 문득 뒤를 돌아보면 거기 있던 것이 거기에 없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만나는 것이다. □ 446면 / 6,000원



1. 피안감성·해변의 운문집·제주기집
2. 단시집 1·니르바나·사형·대륙
3. 문의 마을에 가서·입산·입산이후·새벽길
4. 조국의 별·전원시편·그믐밤
7. 산산이 부서진 이름·구월병·떠도는 사람
8. 어린나그네·일식
9. 밤주막·어떤 소년
10. 1950년대
12. 세속의 길·나의 방랑 나의 산하*
14. 역사와 더불어 비애와 더불어*
17. 진실을 위하여·환멸을 위하여

*는 근간입니다. 이 전집은 계속해서 발간됩니다.